

국산 버섯 2품종, 수출용으로 '딱'

팽이 '설한', 조직 굽고 단단… 냉장 70일까지 보관 가능
느타리 '세나', 해외에서 선호… 흰색의 얇은 깔때기 모양

수출시장을 겨냥해 저장성, 선호도, 씹는 맛 등이 뛰어난 국산 버섯 2품종이 개발돼 앞으로 국내 버섯 수출이 한층 터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국산 버섯의 수출 확대와 품종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흰색 팽이버섯 '설한'과 흰색 느타리버섯 '세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흰색 팽이버섯 '설한'은 국산 품종 백승과 '우리1호'를 교잡해 2020년 육성한 순수 국산 품종이다. 올해 3월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했다.

버섯 발생이 고르고 균일하며, 수량이 1병당(1,300ml) 42g 정도로 안정적이다. 밀동도 잘 뜯어져 수확과 포장이 쉽다.

특히 국내에서 재배되는 외국 품종(크루미시T011)에 비해 갓(직경 5.9mm, 두께 4.9mm)이 작고 두꺼워, 대(길이 138.4mm, 두께 3.2mm)는 길고 단단해 저장과 유통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실제 보통 팽이의 보관 기간이 냉장

60일 정도인데 비해 '설한'은 냉장 7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전문가 시장성 평가에서도 저장성이 뛰어나 수출 품종으로 제격이며, 씹는 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 청도에서 '설한'을 시범 재배하는 허종범씨는 '팽이의 경우 수출을 위해서는 저장성이 좋아야 하는데, '설한'은 균의 허성이 좋아 비앙이 빠르고 조직이 굽고 단단해 오래 저장할 수 있어 앞으로 수출 품종으로 재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팽이(2020년 기준)는 국내 버섯 수출량(1만9,197톤)의 54.8%(1만515톤), 버섯 수출액(5,101만6,000달러)의 36.3%(1,852만3,000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버섯 수출에서 비중이 큰 품목이다.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09년 20%를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31.6%까지 높아졌으나, 여전히 다른 버섯 품목보다 외국 품종 점유율이 높은 실정이다.

흰색 느타리버섯 '세나'는 국산 품



팽이 '설한'



느타리 '세나'

종 '고니'와 '미소'를 교잡해 만든 품종이다. 지난 2019년 개발해 2020년 4월 품종보호출원을 미쳤다.

다발 형성이 우수해 수령이 1병당(1,100ml) 157g 정도로 기존 품종(고니)보다 24%나 많다.

특히 시장에서 선호하는 얇은 깔때기 모양의 갓(직경 31.8mm, 두께 24.04mm)과 곧고 긴 대(길이 9.35mm, 두께 69.09mm)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갓의 색깔이 회색빛이 되는 일반적인 느타리와 달리 흰색을 띠고 있어 흰색을 선호하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 공략에 일맞다.

일반 소비자 대상 식미 검정에서도 버섯이 흰색이라 모든 요리에 잘 어울

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며, 씹는 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북 충주에서 '세나' 품종을 시범 재배하는 김대락씨는 "'세나'는 생육 일수가 짧고 다발성이 매우 우수한 편이며, 식감과 다른 느타리 품종보다 풀깃해 앞으로 시장에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느타리버섯(2020년 기준)은 국산 품종 보급률이 85.0%에 달하며, 국내 버섯 생산량(16만9,066톤)의 27%(4만 5,724톤)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지만, 수출량은 1.19%(228.8톤), 수출 액은 2.68%(136만8,000달러)밖에 되지 않아 수출 시장 공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청-새만금공사

도시 특성화 방안 특강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8일 청 직원들과 새만금개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도시 특성화 방안'에 관한 특강을 시행했다.

특강은 목원대 최정우 교수는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계획에 대한 자문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만금 도시 특성화 전략과 도시개발에 따른 이슈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특강과 연계해 청과 공사의 실무자들이 송도·검단 등 국내 신도시의 특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새만금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가졌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 도시개발 투자유치 분야 등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탄소중립 실천 결의 퍼포먼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이 8일 수원시 농민회관에서 열린 한국농진지도자 74주년 기념식 및 대한민국 농업대상시상식에서 탄소중립실천결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권장현 서부청장, 탄소중립

주간 숲가꾸기 현장 방문

서부지방산림청은 권장현 서부청장이 지난 7일 탄소중립 주간(12.6~10)을 맞아 관내 문수산(죽령산) 편백림 숲가꾸기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라이다(LIDAR)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시연회가 진행, 기존 산림 자원조사는 사람이 직접 측량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으나 라이다는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드론 라이다는 사람이 직접 접근하지 못하는 경사지, 절벽 등 위험 지역에서의 산림자원 정보수집 뿐 아니라 산사태, 산불 등의 산림재해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장현 서부청장은 "앞으로도 발전된 산림조사 기술을 통한 고품질의 산림자원 정보를 활용해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수요자 맞춤형 국산품종 개발 성과 우수성 인정

내병충성 고구마 '호감미'

사료용 옥수수 '다청옥' 등

농진청, 우수품종상 6점 수상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지난 7일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 '제17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6종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우리나라 종자분야 최고 권위의 상(賞)으로 국내 우수품종을 선별·시상해 육종자원화 및 육종자원화를 확대하고 육종자원화를 확장하는 목적으로 1995년부터 매년 8종의 우수품종을 선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그 중 국무총리상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점 등 총 6점을 수상하는 평가를 이루어졌다.

농촌진흥청은 수요자가 원하는 우량 품종 개발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농촌진흥청 수상자는 국립식물과학원 이형운 연구사(국무총리상), 손범영 연구사·이명희 연구관·김성업 연구사·현웅조 연구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강삼석 연구관(농림립신식품부장관상)이다.

이형운 연구사는 외래 호박고구마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내병

'호감미'는 찌거나 구운 고구마의 당도나 높고 육질이 부드러워 국내 육성 품종 중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손범영 연구사는 사료용 수입 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다수확 사료용 옥수수인 '다청옥'을 개발했다. '다청옥'은 파종 후 생육초기 저온에 잘 견디는 등 재배인정성이 높고 수령이 많아 선호도가 높으며 국내 유일의 전환경 유기축산 시료용 옥수수 품종이다.

이명희 연구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령을 얻을 수 있는 땅콩 품종 '신팔관'을 개발하였다. 향신화·합염증 성분이 루테올린과 기름 섭취 밸런스를 강화할 수 있는 리놀레산 함량이 우수하며, 넘어짐에 강하고 재배인정성이 높아 농가 가공업체,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품종이다.

김성업 연구사는 참깨 재배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역병에 강한 품종 '검백'을 개발했다. '검백'은 참기름 추수율과 풍미가 우수해 가공업체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역병, 흰병에 매우 강한 특성을 보이고 넘어짐에 강하며 전국재배가 가능하다.

현웅조 연구사는 아끼비래·고시히카리 등 외래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벼 품종 '해들'을 개발했다. '해들'은 병해충, 넘어짐 저항성 등 재배인정성이 우수하고 외래품종보다 품질이 우수해 4년연속 브랜드대상에 선정된 임금 넘표 이천쌀로 판매되고 있다.

강삼석 연구사는 생장촉진제를 사용하는 노력이 없이 9월 상순에 수확이 가능한 배 품종 '신화'를 개발했다.

'신화'는 전국적으로 생육이 균일하고 품종종질이 안정적이며 추석, 설날 등 명절에 유통되는 품종 중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농촌진흥청 조남준 연구정책국장은 "농촌진흥청은 농업R&D를 주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수요자맞춤형 국산품종 개발과 건강한 국민밥상을 위한 성과를 도출하고 농업 현장 및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건협 전북도회,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건의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9호)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 확대(종합건설: 2억~4억, 전문건설: 1억~4억)에 시행하였고 지난 6월 30일에 1차 연장해 올 연말에 고시 종료할 예정이다.

윤방섭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민족 특례 고시의 적용기간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기계-냉동공조 분야 전문가

농진청 양병준 주무관, 산업현장교수 선정



방목기축을 위한
급수 시스템 등
농가에 도움이
되는 각종 설비
를 개발해 총 3
건의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양 주무관은 평소 재능기부를 통해 미래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전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재능기부로 진행해 왔으며, 에너지인증 및 기계설비 관리 교육, 생활시설 수리 등 다양한 기술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 및 출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의 산업실피과 외래교수를 역임하며 산업 인재 양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병준 주무관은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 그동안 힘들게 터득해 온 기술과 지식을 현장에서 쓰아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냉장·냉동고형 강제 배기장치, 전열식 발판 소독조,

/김윤상 기자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부가가치 창출 논의

농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청아굿푸드·영동농업유통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8일 강원 횡성에서 더덕무침, 것갈 등 지역 농립수산물을 가공·제조·수출하는 '주정아굿푸드(대표 유재주)'를 방문해 식품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강원도 더덕은 특화작목으로 전국 생산량의 47%를 차지하는 고수득 작목이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품목"이라며 "앞으로 더덕과 같은 지역 특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국산원료 구매·가공을 위한 정책자금, 해외인증등록 및 박람회 참가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회사법인 영동농업유통(주)(대표 김성규)을 방문해 고령자배추·무 등 제소류의 유통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절임배추 생산현장을 둘러본 뒤, 계약체계를 활용한 수급인정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맛과 품질이 우수한 강원도의 고령자배추를 2차 가공한 절임배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별 우수 농립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탄소중립, 함께해요'…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양재센터에서 2021년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 해 유기축산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친환경축산 확산에 기여한 우수 농가 및 관련 산업 종사자를 포상하고 친환경축산의 성과를